

사순 제 1 주일:

2017년 3월 5일 (가해)

##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 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통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57 호



주일 미사: 오전 9 시 (한국어, 영어), 오후 10 시 30 분(영어), 오후 12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오후 2-6 시), 화.수요일 (오전 9:30 시-오후 8 시). 목 (오후 2-6 시),

금요일(오전 9:30 시-오후 6 시).

#### 미사 성가

#### 입당 ( 115 )

#### 봉헌 ( 220 )

#### 성체 ( 178 )

#### 파견 ( 116 )

#### 2017년도 구역 및 구역원 명단

1 구역: 장 글라라(구역장), 유 마리아, 이 바실리오, 배 실비아, 배 안젤로,  
오 베드로, 오 루시아, 유 요한, 손 아놀드, 손 젬마, 최 요안나, 최 마태오  
이 마틸다, 이 그레이스, 이 요한, 이 요셉, 이 데레사, 전 제노베파,  
김 안드레아, 김 마르타, 데니엘 한, 신 이윤.

2 구역: 김 유스티나(구역장), 김 헬레나, 박 니콜라스, 박 마가렛, 김 마론,  
김 데오도라,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허 루카, 배 시몬, 장 울리안나,  
김클라라, 흥마르코, 흥아네스,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이 글라라,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정 바오로, 정 릿다, 김 유수티노,  
김희정, 고순영.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은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탏하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거룩한 미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요한 바오로 2 세 교황

##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3/5/17	박 니콜라스	김 유스티나	이 요한
3/12/17	이 마틸다	이 바오로	이 요한
3/19/17	이 그레이스	김 헬레나	이 요한
3/26/17	박 니콜라스	김 유스티나	이 요한

영어독서: Stephanie Limon

##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26/17	\$326	0.00	0.00

미사해대금: \$50

**성당 청소 봉사자 스케줄 ( 5/6/17 이후 봉사자와 문의사항은 이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날짜	봉사자	날짜	봉사자
3/4/17	이그레이스, 장율리안나	4/8/17	김 마르타, 신 이윤
3/11/17	김희정, 고순영	4/15/17	박바오로, 박세라피나
3/18/17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4/22/17	배시몬, 김안드레아
3/25/17	이바오로, 이빅토리아	4/29/17	오베드로, 오루시아
4/1/17	장글라라, 김클라라	5/6/17	이바실리오, 최마태오

##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 말씀의 이삭

## 기도하는 삶

손여운 카타리나/ 배우

"그렇게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벤손 몬시뇰이 쓴 소설 속의 한 소녀가 묵주기도에 대해 수녀님께 질문하는 내용중 한구절입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왔지만, 신앙심이 깊지도 않았고, 기도 생활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지라, 저 또한 위의 소녀와 비슷한 질문을 마음속에 늘 갖고 지냈던것 같습니다. 살아생전 묵주를 손에서 놓지 않고 행복해 하시던 외할머니, 10년 넘는 기간 동안 9일 기도를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던 어머니를 봄 오면서도, '참 대단하시다'라고만 생각만 했을 뿐, 저 스스로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굳이 기도로 알리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 원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실 테고, 이루어 주실 일이면 알아서 다 해주시지 않겠어?' 무언가 들어주십사 청한다는 행동 자체가 웬지 낯간지럽고 염치없어 보이면서 불필요한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계속 그렇게 누군가에게 의지만 하며 사는 삶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요.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은 나약함이 이끌어낸 잘못된 삶이라 생각하며, 오랜시간을 살아온 저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무너만 신자인 신앙생활을 하며, 가끔 냉담 속에 그분을 부정 하려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게도 어느 날 진정한 하느님을 만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깜깜한 상황 속에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손에 쥐게 된 묵주. 그렇게 시작하게 된 기도가 9일 기도였습니다. 그때 처음 만난 성모님은 정말로 따뜻한 분이셨고, 하느님께 제 기도를 전해주시는 유일한 사랑의 어머니셨습니다. 간절히 청하자 하느님께서는 놀랍게도, 저의 벼랑 끝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때의 기적과 감사를 기억하며, 저는 지금까지 수년째 9일 기도를 해오고

## 공동체 소식

### 흘레스 피플을 위한 조찬 봉사 - 2/28/17

지난 2월 28일, St. Vincent De Paul Center에서 아침 일찍부터 조찬 봉사에 참여 해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아침 6시부터, 재료를 준비하신 자매님들, 참석은 못하셨지만, 치킨을 끊어서 보내주신 자매님, 쿠키를 만들어서 오신 자매님, 바쁘신 가운데도 조찬 봉사에 일조해주신 분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셨고, 주님의 은총이 형제, 자매님들과 늘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 소공동체 모임과 친교모임

매달 3 번째 주일에 있을 소공동체 모임에는 아침식사 없이, 커피와 도너스를 들면서, 소공동체 모임을 하고, 친교모임을 위한 식사는 소공동체 모임이 없는 다른주에 각 구역장님들과 친교부장님이 결정하여, 친교모임 식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는 소공동체 모임에는 주일 복음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매일미사책과 성가책을 지참하시고, 소공동체에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 실자가의 길 기도

지난 금요일(3/3/17), 첫번째, 실자가의 길 기도 모임에 많은 분이 참석 하셔서,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7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3/10, 3/17, 3/24, 3/31, 4/7. 많이 참석 하셔서, 보람되고, 은총이 충만한 사순시기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 설체조배 3/2/17, 오후: 6 시 30 분

지난 3월 2일 설체조배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귀한 성시간동안에 함께 기도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설체조배는 4월 6일에 있습니다.**

### 매일미사 책값과 사순절 현금 봉투

2017년도 매일미사 책값(\$50/권당)을 재무부장님에게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현금봉투는 곧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 기도하는 삶

손여운 카타리나/ 배우

이 글을 쓰며, 그때를 추억해보니, 참으로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도드리던 제 모습이 떠올라, 지금의 제 기도생활을 반성하게 됩니다

소리 내어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문 한 구절씩 곱씹어 느끼던 진실하고 성실한 기도. 그 순수한 기도를 그분께서 얼마나 기쁘게 들으셨을지를 생각하니, 그때의 첫 마음을 잊지 않고 기도하리라 하는 반성과 다짐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느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기 전과 후의 삶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염치없고 불필요한 행동이라 여겼던 기도에 대한 생각의 틀은, 그분께 작은 것 하나까지 말씀드리며 대화하는 시간들로 바뀌어 채워졌고, 자기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관념들은, 기도를 통해 내 안의 그릇됨을 찾아내어 반성함으로써, 그분께서 이끄시는 참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아는 삶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느님께서 기도를 통해 제게 알려주신 기적과도 같은 선물입니다

### <서울주보에서>

### 성경속 동식물

## 이방인을 상징한 돼지

인간과 무척 가까운 가축인 돼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복의 상징으로 등장 하지만, 성경에서는 불순한 짐승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구약성경에는 돼지를 부정하게 여겨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 있다.(레위 11:7; 신명 14:8 참조) 또한 유다인들은 돼지와 이방인의 불결합을 상징적으로 연관 시켰다. (마태 7,6 참조)

<글 성경속 동식물/ 카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발행>

있습니다.